

건설 관련 학과 졸업생의 취업률과 전공 일치성

-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3·6·9·11개월, 총 4차)이 지난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을 '유지취업률'이라 함
- 이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자 중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제외한 인원을 뜻함
- 2022년 기준 건설 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74.0%로 공학계열에 비해 약 3.1%p 높게 나타난 반면, 유지취업률은 84.4%로 공학계열에 비해 약 0.3%p 낮게 나타남
- 산업공학(86.2%), 신소재공학(87.5%), 전자공학(87.4%), 정보·통신공학(84.9%)과 같은 첨단분야 관련 학과에 비해서도 0.5%~1.7% 낮은 수준임
- 이는 평균적으로 건설 관련 학과의 졸업자가 공학계열에 비해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높으나, 직장을 1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의미함

연도별 건설기술인 관련 학과별 취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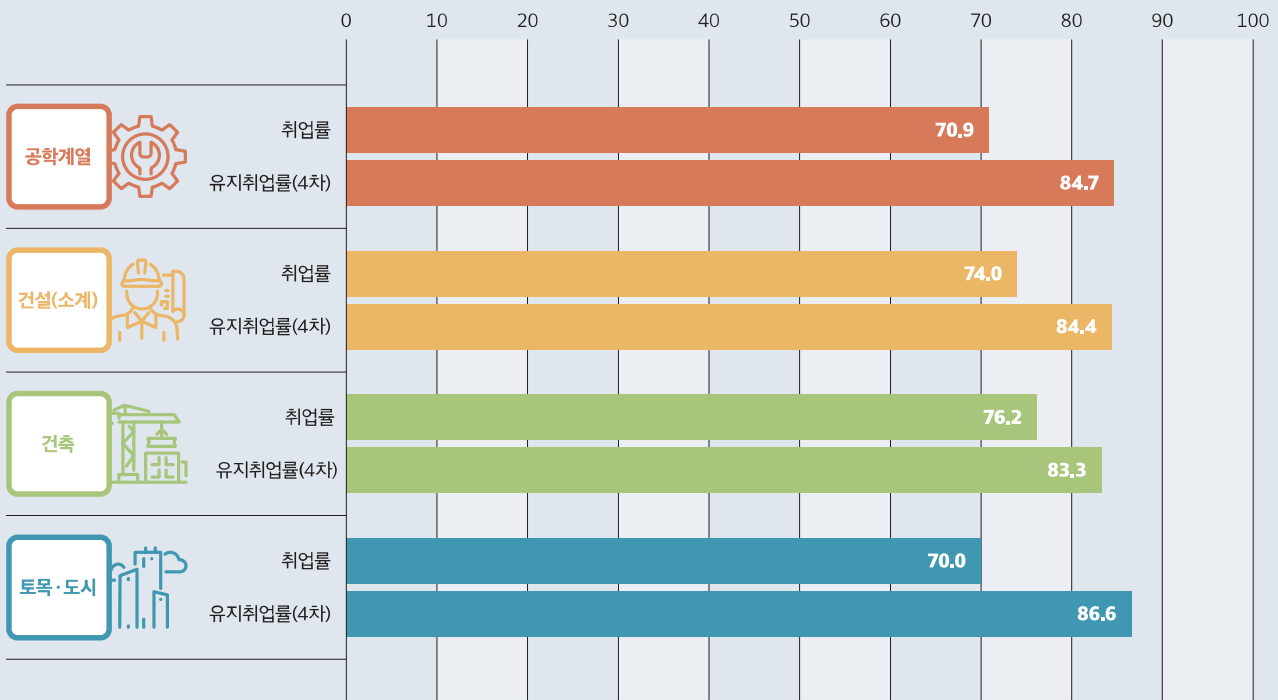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취업률				유지취업률(4차)			
	공학계열	건설 관련 학과			공학계열	건설 관련 학과		
		건축	토목·도시	소계		건축	토목·도시	소계
2016	70.4	72.2	66.3	69.9	80.1	78.9	80.6	79.5
2017	68.8	72.3	65.6	69.7	82.1	81.0	83.8	82.0
2018	70.5	72.1	68.4	70.7	82.4	81.1	80.7	80.9
2019	68.5	72.0	68.0	70.5	83.7	82.6	86.3	83.9
2020	66.0	71.1	68.3	70.0	82.7	84.7	85.9	85.1
2021	68.2	74.3	68.9	72.3	83.4	83.9	85.8	84.6
2022	70.9	76.2	70.0	74.0	84.7	83.3	86.6	84.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각 년도 4월 1일 기준.

주: 1) 학과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전공)분류자료집」에 따름

2) 대학원을 제외한 학위과정, 즉 전문대학과정 및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인원



- 통계청은 청년층(15~29세)의 취업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매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행
 - 취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매우 일치, 그런대로 일치)가 약 50.6%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공학, 제조 및 건설의 경우 전공과의 일치성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58.6%으로 나타남

취업 유경험자의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

(단위: 천명, %)

구분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인문계열	483	64.2	110	14.7	109	14.5	50	6.7
예술, 체육계열	9	50.1	-	0.0	5	26.8	4	23.1
상농공수산계열 등	407	48.2	145	17.2	201	23.8	91	10.8
교육	74	23.3	14	4.6	43	13.5	186	58.7
예술	240	40.4	51	8.5	140	23.5	164	27.6
인문학	192	46.5	62	15.0	105	25.4	54	13.1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81	35.8	30	13.3	71	31.3	44	19.5
경영, 행정 및 법학	300	34.1	117	13.3	272	31.0	190	21.6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74	31.1	27	11.2	78	33.2	58	24.6
정보통신기술	58	30.4	20	10.8	59	31.3	52	27.5
공학, 제조 및 건설	346	28.3	160	13.1	383	31.3	335	27.4
농림어업 및 수의학	12	43.9	2	6.5	2	7.8	12	41.8
보건	90	14.7	18	3.0	102	16.6	405	65.7
복지	96	38.9	24	9.9	54	22.0	72	29.2
서비스	232	42.2	44	8.0	119	21.6	155	28.2
합계	2,694	37.8	826	11.6	1,744	24.4	1,872	26.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3년 5월 기준.

주: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 시사점**
- ① 건설 관련 학과의 경우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높으나 1년 이상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긴 노동시간과 높은 업무강도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취업 후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워라밸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② 공학, 제조 및 건설 분야의 경우 전공 일치성이 전체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40% 이상의 인원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건설업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지 않아 실제 건설업 전공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건설업에 특화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취업 환경과 전공 일치성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